

계시록 속의 구약 2부

©아세르 인트레이터, 2009년 7월 6일

재림 때의 진짜 전쟁

계 19 장을 보면, 예수아께서 군대 장관으로 천군을 이끌고 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.

계 19:11, 14 □ **"또 내가 아들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...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"**

그런데 **수 5:13-15**에는, 예수아께서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시지만 군대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. **왕아 6:17**에서는 엘리사가 하늘의 군대를 보지만, 군대 장관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.

계 19 장은 **수 5 장**과 **왕아 6 장**에 대한 결론입니다. 여호수아 서의 역사적 정황은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입니다. 열왕기 하서는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이 그 배경입니다. 정황을 알지 못하면, **계 19 장**에 나오는 하늘의 전쟁을 오해하여, 그 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

속 14 장은 전쟁을 지상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. 세상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는 것입니다 (**2 절**). 예수아께서는 재림하셔서 그들과 싸우십니다 (**3 절**). 그분의 발이 올리브 산에 섭니다 (**4 절**). 하늘의 군대를 동반하고 계십니다 (**5 절**). 계시록은 천상의 관점을 보여줍니다. 히브리 선지자들은 지상의 관점을 보여줍니다.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,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해야 합니다.

그 때엔 큰 군대 셋과 작은 군대 하나, 총 네 군대가 나타날 것입니다. 큰 군대들 중 하나는 천사들로 하나는 귀신들로, 하나는 열국으로 이뤄져 있을 것이요 작은 군대 하나는 이스라엘에 있을 것입니다.

[왜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메시아닉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인지 이해가 되시지요?]

계 12:7 □ **"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"** 미가엘은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 싸우도록 명 받은 천사 사령관입니다 (단 12:1).

에덴 동산의 회복

계 6:14 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**계 6 장**은 **사 34:4**의 인용입니다.

사 34:4 □ “**아들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와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**”

계 19:15 은 예수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

사 63:3 □ “**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안 자가 없이 내가 옳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암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암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**”

계 21:1 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**계 21 장**은 **사 65:17** 을 인용했습니다.

사 65:17 □ “**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**”

계 21:23 은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고 묘사합니다. [주: 해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. 다만 도시를 비추기 위해 태양 빛이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.] **계 21 장**은 **사 60:19 장**을 인용하고 있습니다.

사 60:19 □ “**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은 네 영광이 되리니**”

계 21:12 은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을 딴 열 두 문이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**계 21 장**은 **겔 48:31** 의 인용입니다.

“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”

계 21 장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전체에 걸쳐, 이사야, 에스겔, 스가랴 서로부터의 인용이 매우 많습니다. 이 모든 묘사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닉 왕국의 지상 건립입니다. 이 배경을 모르고는, 계시록을 힌두교의 열반 (nirvana)이나 할리우드의 우주 판타지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열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 계시록을 볼 때 성경적 회복보다는 환각적 망상을 떠올립니다. 그래서 종말 예언에 대한 일반적 줄기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. 실상은 우리 세대의 복음 메시지의 중추가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.

계 22 장은 생명의 강, 나무와 열매를 묘사합니다. 이것은 **겔 47:1-2** 에 나타난 예언의 연장입니다. 또한 **창 2 장**의 에덴 동산과 연계되어 있습니다. 계시록에서, 요한은 (최초) 창조의 대체가 아니라 에덴의 회복을 그리고 있습니다.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틀린 것이 아니라, 이 지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

있어서 틀린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회복 사역을 하시는 것이지 대체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.

시작 전에 예정된 끝

계시록의 정황이 되는 구약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.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될 뿐 아니라,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. 계시록의 마지막 3장은 창세기의 첫 3장을 거울로 비춘 것 같습니다.

창세기의 시작에서 우리는 창조와 에덴 동산의 창설, 아담과 하와의 결혼, 뱀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. 계시록에서, 우리는 새 창조, 에덴 동산의 회복, 예슈아와 그 신부의 결혼, 그리고 뱀의 패배를 보게 됩니다. **장 3 장**에서는 인간이 범죄했습니다. **계 20 장** (끝에서 3번째 장)에는, 죄가 최후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. [계 20 장은 장 3 장의 뱀이 실상 사탄이었음을 설명합니다.]

제정신이라면, 기술자든 건축자든, 토건업자든 마지막 나사와 선 등 세부 사항까지 포함한 청사진을 문서화하여 준비해놓지 않고는 첫 번째 벽돌을 놓거나 첫 삽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“빛이 있으라”는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, 이미 요한 계시록의 결말을 계획해 두셨습니다. 랍비들은 창세기의 창조 이전부터 토라와 메시아가 존재했다고 말합니다.

하나님께서서는 “땅의 기초를 두기 전 (마 25:34, 엠 1:4, 벤전 1:20, 계 13:8)에” 당신의 왕국을 계획하셨습니다. 랍비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. “최후에 할 일을 최초에 계획해야 한다.” 창세기의 모든 일은 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책의 첫 장을 쓰시기 전에, 마지막 몇 장에 해피 엔딩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.